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패밀리 존 섹션 중 최고의 작품에게
BIFAN어린이심사단상을 수여할
어린이 심사 위원단

스크린 점령한 불온한 여자들

INTERVIEW <러행> 임흥순 감독

PEOPLE <어둔 밤> 심찬양 감독 | <화어전영시장> 왕위 발행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하나멤버스가 만났다
하나멤버스 회원이세요? 하나멤버스 앱 설치 및 신규회원 가입시
BIFAN 일반상영 영화티켓 1매 증정

이벤트 기간 2017. 06. 23 ~ 2017. 07. 23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17. 7. 13 — 7. 23

*개·폐막식 및 심야상영은 제외



이벤트 참여방법 HOW TO

- STEP 01**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클릭**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입 가능 | 마케팅 전체동의 필수
- STEP 02** **회원가입 시 단체코드에 관계사 및 코드입력 필수**
[관계사: KEB하나은행 | 코드: 판타17]
- STEP 03** **회원가입 완료 후 쿠폰 발급 확인**
※1인 1매 1회에 한함, 하나멤버스 앱 내쿠폰함에서 확인
- STEP 04** **쿠폰 유효기일 내 온라인 예매 또는 BIFAN 현장 티켓부스에서 쿠폰 제시하여 사용**
· 온라인(PC/스마트폰)티켓 예매 | 기간 2017.7.5 ~ 7.22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하나멤버스 쿠폰번호 투입
· 현장 티켓 구매 *단, 개막일자인 2017.7.13일은 사용불가
현장 티켓 발권 창구에서 하나멤버스 쿠폰 바코드 제시

Bye(바이)~ 나의 털~

바디네이처

털털함은 이제 안녕~~

제모 걱정없이 산뜻하게 놀자~!!!



센티브라인 [제모크림]

럭스라인 [왁스스트립]

스페인에서 온
세계적인 제모 전문 브랜드
바디네이처

body natur

#바디네이처 비디오 페스타 참여하고 #참여행 가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바디네이처 페이스북'을 참고하세요.

※ 하나멤버스 신규가입자에 한하며, 회원 탈퇴 후 재 가입자는 증정불가합니다. (마케팅 전체동의 필수) ※본 쿠폰 1매는 일반상영 티켓 1매로 교환 가능합니다. (개/폐막식 및 심야상영은 제외) ※본 쿠폰은 이벤트 상품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현금으로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타 이벤트 및 타 제휴사할인과 중복사용 불가합니다. ※하나멤버스 제휴쿠폰과 쿠폰으로 발권받은 티켓은 변경, 교환, 환불 및 매매 불가합니다. ※본 쿠폰은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발권된 티켓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행사 내용은 하나멤버스와 제휴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없이 변경되거나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문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032-327-6313) ※본 홍보물은 2017년 7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광고-3459호(2017.06.01)/은행홍보170601-06

EVENT

10:00

VR 체험존
부천시의회 갤러리

11:00

전시 '전도연, 17개의 우주'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

14:00

마스터클래스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
CGV부천 6
<더 바> 상영 후

20:00

메가토크 x 김혜리의 필름 클럽
CGV부천 4

표지사진 백중현

STAFF

발행인 배경록 김중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김현수 임수연
객원기자 곽민해
사진 백중현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윤희 신은지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정기구독문의 02-2013-1300



PHOTO NEWS

B.I.G(BIFAN Industry Gathering) 프로그램 중 하나인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가 16일 오후4시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렸다. 5편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피칭 행사의 열기가 뜨겁다. 사진 백중현



메가토크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가 열렸다.

페미니즘으로 여성 캐릭터 읽기

강력한 존재감의 여성 캐릭터를 만나! 메가토크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가 16일 오후5시30분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렸다. 특별전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의 일환으로, 상영작 <글로리아>(1980), <더 빨리 푸시켓, 죽여라 죽여>(1965), <캐리>(1976), <이어도>(1977)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리였다. 연사로는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조혜영 영화평론가가 참석했다. 행사는 두 연사의 발표로 시작됐다. 조혜영 프로그래머는 "남성이 주인공이 될 때와 달리) 여성이 액션물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 어떻게 강한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온다"며 "권력과 통제가 당연시되는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영화 속 남성-여성 관계 설정에서 읽을 수 있는 가부장 문화에 대해 해설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바버라 크리스티의 저서 <여성괴물>에서 개념을 가져와 "여성 괴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성을 괴물로 그리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도덕 기준을 위협하는 존재가 괴물이 된다"는 배제의 원리를 통해 여성의 주체적 표현이 괴물로 그려지는 사회 문화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영화 속 페미니즘에 관한 두 연사의 발표 이후 관객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글 곽민해 객원기자·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한국 장르영화 기획의 최전선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 열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과 BIFAN이 주관하는 공개 피칭 '시나리오 쇼케이스'가 16일 오후4시 고려호텔4층에서 열렸다. 국내 외 영화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5편의 시나리오가 소개됐다.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바이러스 재난 영화 최종구 작가의 <겨울모기>, 비운의 소현세자와 인조의 갈등에 엑스시즘이란 소재를 도입한 김영갑 작가의 <구마비록>, 심청과 심봉사의 관계를 호러로 변주한 민경근 작가의 인옥 먹는 살인마 이야기 <심청전>, 오피스 SF 생존 스릴러라는 수식어를 달고 인공지능과의 사투를 벌이는 이은경 작가의 <인텔리전스>, 한국 경찰 영화의 계보를 잇겠다는 목표를 지닌 김호연 작가의 정통 수사극 <폴리스 라인>이 산업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글 김현수· 사진 백중현



사진 백중현 객원기자



사진 백중현 객원기자

OTT 플랫폼, 콘텐츠 시장의 미래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둘러싼 일련의 이슈는 OTT(Over The Top) 플랫폼이 영화계에 불러일으킨 파급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7월16일 오후 4시부터 CGV부천 7관에서 열린 'OTT 플랫폼 강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해 OTT 플랫폼의 비약적인 성장이 세계적인 이슈임을 증명했다. 스타디움 미디어의 창립자 밋치 말론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배급할 때 포스터의 중요성이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갔다.

연출가에게 듣는 VR 영화의 현주소

VR 체험존 전시 작품의 제작기를 살펴보는 VR 패널토크가 16일 오후2시 CGV부천 7관에서 열렸다. 감독의 입을 통해 VR 영화만의 스토리텔링과 기술적 고민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감독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객의 시선을 스토리 중심으로 끌어와야 한다"(틸 그레이헤븐스), "가상 인물 대신 실제 인물이 등장할 때 몰입도가 높다"(채수웅) 등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다"(이현석)는 지적도 나왔다.



BIFAN人

양한결 스페인어 통역사

영화제에서 많은 일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을 비롯한 스페인어권 국가 영화인들의 통역을 맡고 있다. 영화 및 미디어분야에 관심이 많아 지원했다. 부천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 예전에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이곳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읽고 리포트를 써서 보고를 올리는 일을 맡았다. 통역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것은. 고유명사(웃음) 마니아들이 많이 모인 영화제다보니 스페인 시네마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이 연이어 언급된다. 통역의 매력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 임수연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말.말.말.

"뺨바지 입는 것 빼고 큰 불만은 없었다.(웃음)"
→ '판타스틱 단편 걸작전4' GV에서 배우 이동휘, 배우 남궁민이 연출한 <라이트 마이 파이어>에 출연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감독으로도 신뢰할 만했다며.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일 년에 한 번씩 상영회를 열고 싶다."
→ <어둔 밤> GV에서 심찬양 감독, 극장 개봉이 불투명하지만, 그만큼 첫 장편인 이 영화가 자신과 스태프들에게는 소중한리며.
"요새 길 찾기가 어플도 좋은데, 골방에서 좀 나와라."
→ 'B.I.G. 시나리오 쇼케이스'에서 이춘연 씨네2000대표, 작가들에게 조합이나 영화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세일즈 경쟁력을 갖추라며.

“남이든 북이든 감정은 똑같다”

〈려행〉 임흥순 감독



임흥순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여성은 중요한 화두다. 4·3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제주도 할머니(〈비넵〉(2012)), 40여년 전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바쳐야 했던 여공들(〈위로공단〉(2014))은 한국 현대사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그의 신작 〈려행〉의 주인공인 김복주, 이윤서, 강유진, 양수혜, 김미경, 한영란, 김광옥, 김경주 등 탈북 여성들 또한 그렇다. 탈북 사연이 저마다 다르지만, 임 감독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사람들이 보고 겪은 감정은 똑같다”며 “그들이 보고 겪은 감정들은 어떤 것일까, 그걸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회 ‘포스트 트라우마’에 참여한 26분짜리 영상 〈북한산이〉(〈려행〉)의 출발점인데.

4·3 사건(〈비넵〉(2012))이든, 노동 문제(〈위로공단〉(2014))이든 항상 분단문제가 연결되어있어 기회가 되면 한번은 분단 문제를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다. 마침 김근태재단으로부터 참여 제안이 와서 〈북한산〉을 시작하게 됐고, 김복주씨로부터 탈북사연,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으며 많이 공감됐다. 2016년 10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에 참여하면서 〈북한산〉의 주제를 확장해 기획한 작품이 〈려행〉이다.

저마다 사연이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

분노가 가장 컸다. 북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탈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순간 여성의 몸은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나. 이 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남·북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 화가 났지만, 현재진행형인 문제라 관객들에게 무겁지 않게 전달하려고 했다.

인터뷰 사이에 탈북 여성들이 산이나 강으로 가는 판타지나 퍼포먼스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이 중요해졌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풍경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연은 생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우리에게 자연은 여가를 보내는 공간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나. 또, 이분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으면서 이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보니 퍼포먼스가 나오게 됐다. 공간을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표현하고 싶었고, 산이나 강으로 가면서 탈북 경로든 고향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김복주씨의 경우 산행을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께 제사드리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다.

다음 작업은 무엇인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은 세 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환생〉을 편집하고 있다.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을 가진다. 해방 전후를 경험한 할머니 네 분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단절되고 잊혀진 것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글 김성훈 · 사진 백중현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둔 밤〉 심찬양 감독



저거 실제상황이야? 〈어둔 밤〉을 보는 관객들은 내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어둔 밤〉은 재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단편 〈희상, 어둔 밤〉(2015)을 확장시킨 장편으로, 예비군이 주인공인 슈퍼 히어로 영화를 만드는 대학 동아리의 이야기를 담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봉준호 감독님이 극영화가 다큐멘터리적 순간을 가져올 때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보고, 그런 순간들로만 이루어진 영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당시 단편은 주인공들이 갑자기 군 입대를 해서 극 중 영화가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났다. 조빙 역의 조병훈 촬영 감독이 갑자기 미국영화연구소(AFI)에 합격하는 등 멤버들에게 변화가 생기고, “왜 주인공들이 군대 때문에 영화를 못 만들고 실패를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어 1부 이후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다고.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출신으로 포항에 거주하던 감독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 영화과 학생들과는 조금 달랐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나 스태프들은 평범한 과 후배나 친구였고 지금은 로스쿨이나 일반 기업에 다닌다. 다만 그들이 ‘덕후’였다. 는 점은 작품에 많은 영감이 됐다. “최근 영화 속에서 ‘옥자’ 역을 맡은 친구에게 돼지고기를 6만원 어치 사 먹인 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옥자〉를 보러 갔다.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모두 촬영했다.” (웃음) 나중에 〈어둔 밤〉 DVD가 나온다면 이 모습을 부가영상으로 싣고 싶다는 심찬양 감독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글 임수연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한·중 영화인들의 교류는 계속된다”

중국영화산업전문지 〈화어전영시장〉 왕위 발행인



“정치는 정치고, 영화인들은 서로 협력해 좋은 영화를 만들면 된다.” 아시아 공동제작 활성화 포럼에 참석한 〈화어전영시장〉 왕위 발행인은 한한령 탓에 잠시 위축된 한국과 중국의 공동제작 움직임을 두고 “중국 영화인들은 여전히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어전영시장〉은 매년 칸, 베를린, 베니스, 북경, 상해 등 15~20개 국제영화제에 중국영화산업을 소개하는 잡지다. 그는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매년 ‘한중 영화포럼’ (가제)을 연다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관계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싶어 내린 결정”이다. 그의 영화인생은 영화잡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1997년 북경전영학원에 녹음 전공으로 입학해 친구 지아장커와 함께 〈플랫폼〉(2000)부터 〈임소요〉(2002) 〈세계〉(2002) 〈스틸 라이프〉(2006)까지 1인 다역을 맡으며 제작해왔다. 중국영화산업이 형성되기 전부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해외영화제를 돌아다니며 네트워킹을 구축했고, 그때마다 해외 파트너들에게 중국영화를 소개했다. “베를린 필름마켓(EFM)에서 열린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다가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게 〈화어전영시장〉이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 잡지를 입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주목해봐도 좋겠다.

글 김성훈 · 사진 백중현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사드락 곤살레스-페레온 | 스페인 | 2017년
105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17 HYU5 17:00
7.20 HYU6 11:00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놓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다. <블랙 할로우 케이지>는 시간여행과 미지의 존재의 등장 같은 SF 요소와 공포영화 특유의 미스터리한 전개가 뒤죽박죽 섞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결말로 관객을 이끈다. 영화는 인간이 로봇 팔을 인식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한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13살 소녀 앨리스(로웨나 맥노널)는 어려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한쪽 팔도 잃었다. 사고 후유증 때문에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 비아트리스를 죽은 어머니의 환생이라고 믿고 산다. 그녀의 일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건 집 근처의 숲 속에서 검은 큐브 모양의 괴상한 물체를 발견하면서부터다. 큐브 속에는 앨리스의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을 예고하는 듯

한 경고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것. 그 이후로 앨리스의 주변에서는 정체 모를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SF 스릴러나 판타지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설정을 제시하며 시작하는 영화는 한적한 시골 집에 느닷없이 정체 모를 어린 남매가 들이닥쳐 아버지를 난감하게 만들면서부터 스릴러 영화의 전개를 표방한다. 이 어린 남매는 누구의 집 아이들인가? 혹은 자신과 얽힌 제 3의 가족일까.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의 앨리스와 그녀를 돌보는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영화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반전 속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블랙 할로우 케이지>는 사드락 곤살레스-페레온 감독의 두 번째 장편으로 가족 드라마와 판타지 장르에 정통한 스페인 영화계의 자양분을 토대로 한 독창적인 영화다. 여러 장르 요소의 특징을 한데 섞어서 스펀스와 반전을 느끼게 만드는 연출력이 흥미롭다.

김현수

■ 상처 입은 소녀의 잔혹한 시간여행.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폴 슈레이더 | 미국 | 2016년 | 93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7 CH 21:00
7.20 BST3 14:00

인생역전을 꿈꾸는 하루 인생이 뭉쳤다. 주인공 트로이(니콜라스 케이지)와 매드 독(윌렘 데포), 디젤(크리스토퍼 매튜 쿡)은 갓 출소한 전과자다. 사회와 잘 지내보려는 의지는 두둑하나 스트립 클럽을 전전하며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보통의 일상. 이런 세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라이벌 갱단의 아이를 납치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지질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다시 위험한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평소에도 진중함과는 거리가 먼 우왕좌왕 트리오의 작전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택시 드라이버>(1976)의 각본을 쓴 폴 슈레이더의 연출작으로, 페이스북이 등장할 정도로 현대적인 배경을 그리는 것과 달리 스타일에는 옛 정취가 가득하다. 독특한 색채와 현란한 그래픽, 과감한 폭력 묘사가 주는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장르 팬들에게 추천한다. 객민해 객원기자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마티 도 | 라오스, 프랑스, 에스토니아 | 2016년 | 10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18 HYU4 20:00
7.22 BST4 11:00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던 평화로운 라오스는 잊어라. 라오스 특유의 습하고 더운 분위기가 호러 스릴러 장르의 신선한 재료로 승화된 작품이 부천을 찾았다. 순진무구한 시골소녀 녹은 부유한 외국인 남편을 둔 친언니 안나의 집에 함께 살게 된다. 외모를 잘 꾸미지 않는다고,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하던 그는 시력을 점점 잃게 되는 언니를 돌보면서 새로운 욕망에 눈을 뜬다.

안나의 집은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이다. 안나가 '부리는' 하인이나 정원사는 부부보다 계급이 낮고, 사실상 하녀 취급을 받는 안나 역시 마찬가지다. 복권 당첨에 집착하고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화려하게 치장하며 클럽을 찾는 녹의 욕망이 좌절당한 후 벌어지는 파국은 라오스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된 계급 문제를 섬뜩하게 구현해낸다. 녹 역의 암파이푼 폼파푼나는 마티 도 감독의 데뷔작 <찬탈리>(2013)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임수연

어둔 밤

Behind the Dark Night

심찬양 | 한국 | 2017년 | 117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7.18 BST3 14:00
7.20 HYU6 20:00

영화 동아리 '리그 오브 웨도우'의 멤버들은 군복을 입은 예비군이 주인공인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총동적으로 결심한다. 제목은 어둔 밤(Dark Night), 목표는 할리우드 진출. 그들은 <명량>과 <7번방의 선물>을 재미있게 본 신입생들을 스태프로 끌어들여, 그들에게 예술영화 감독으로 정평이 난 아파차푼 위라세타쿤 감독의 위대함을 설파한다. 그들의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본받아 CG를 쓰지 않으며, 캐릭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메소드 연기를 추구한다. '씨네필'로서 주위들은 것은 넘치지만 어찌저 보는 입장에서는 키득거리게 되는 <어둔 밤>의 제작기가 타올 높은 코미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상황인지 허구인지 구분되지 않는 형식에 있다. 관객이 영화애호가로서 가진 경험이 많을수록 웃음도 자주 터진다. 메이킹 필름에 해당하는 1,2부를 거쳐 완성본이 등장하는 3부는 영화의 백미다. 투박하지만 나름의 고민과 재기가 느껴진다. 임수연

페미니즘이 호러영화를 구원하리니

특별전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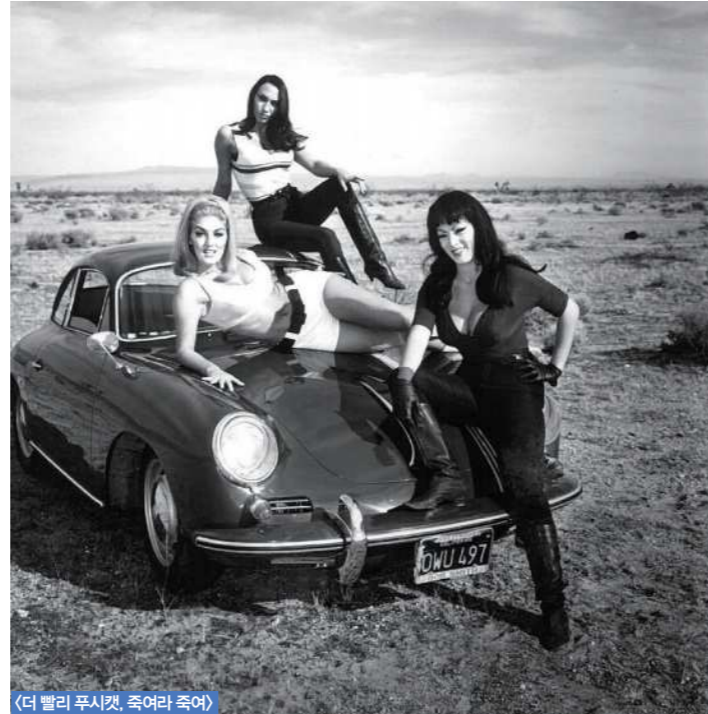
김영덕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후, 살인자의 동기가 '여성혐오'였다는 것에서 촉발해 그 파장으로 미소지니(misogyny, 여성혐오)에 대한 담론이 형성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메갈리아'의 미러링 전략에서 파생된 사이버 설전이 페이스북 댓글에서까지 팽팽히 벌어졌다. DJ DOC가 <수취인분명> 노랫말의 '여혐' 비판과 관련해 촛불집회 출연이 무산되었다 다시 성사된 일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을 둘러싼 "담론적 갈등 상황"과 페미니즘적 문화해석에 대한 고민이 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늘 남아 있다가 어느 날 밤 문득 여성과 호러를 연결시켜, '공포스러운 여성'을 영화제에서 특별전 주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바로 기획서를 썼다. 호러영화도 여성혐오적이고 저급한 문화로 비판받아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캐리>(1976)나 <더 워먼>(2011) 같은 영화는 엄청나게 전복적이란 말이지. 호러영화 속에서 여성의 재현 문제를 잘 큐레이팅해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통해 호러영화의 문화적 지위를 회복시키자"라는 게 기획의도였다.

여성의 생명적 특성과 공포

우선 작품 선정 과정에서 기획안의 피드백과 추천을 주유신 교수, 손희정 평론가, 동료 모은영·남종석·김봉석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았다. 손희정은 이 특별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바바라 크리드의 <여성괴물>을 번역한 문화평론가로서, 조혜영 평론가와 함께 메가토크 패널로도 참여한다.

월경혈, 원시성, 자연에 가까운 존재라는 여성의 생명적 특성과 공포가 연결된 작품들을 보자. 스티븐 킹과 브라이언 드 팔마를 일약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걸작 <캐리>에서는 사춘기의 통과의례를 겪는 소녀가 괴물이다. 광산도 어머니 밑에서 자란 캐리 화이트는 고등학교가 되어서야 초경을 하고 동급생으로부터 놀림을 받는다. 동급생들은 짜고서 캐리를 학생무도회에 퀸으로 뽑아 무대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을 때 돼지피를 쏟아붓는데,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



<어미>

이 파는 수치와 모욕을 의미함과 동시에 캐리의 초자연적 힘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이 피와 함께 캐리의 폭주가 시작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악의 근원이며 월경을 죄의 징표라고 보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질서를 체화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벌받고 우리가 안심할 때 허를 찌르는 마지막 장면을 놓치지 말자! <더 워먼>은 야성과 비문명에 속한 여성괴물을 그린다. 마지막 야생의 여자를 포획한 변호사가, 지하벙커에 여자를 묶어두고 강제로 문명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맞는 잔혹한 파국을 다룬다. 선댄스영화제에서 많은 남성 관객의 항의를 받은 문제의 영화. 문명이라는 방패로 원시와 야만에 가해진 폭력을 합리화하는 남성 가부장의 폭력성과 그 대물림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작품이다. 여성의 원시성과 비문명성을 다룬 또 하나의 작품 <이어도>(1977)는 김기영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시대를 앞서간 괴작이다. 근대와 남성의 상징계보다 근원적인,



<더 워먼>



<이어도>

아마도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봤다면 '기호계'적인 세계 그 자체라고 할 이어도와 그 속의 여성들의 신비로운 힘의 묘사는 영화사 속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만하다.

거세하는 여성/모성의 공포와 연관된 영화들도 있다. 손희정은 거세하는 여성괴물의 대표작으로 한국영화 <어미>(1985)를 추천했다. 윤여정이 인신매매를 당한 딸의 복수를 위해 칼을 드는 어머니를 연기한다. 어미의 복수의 대상이 권력과 시스템이 아니라 응징받아 마땅한 인신매매단이라는 점과 결국 폭주하다가 처벌을 당하는 여성괴물이라는 점에서는 안전한 결말이지만, 생생히 묘사된 '거세하는 여성괴물'의 재현은 기념비적이다.

모은영 프로그래머가 '강추'한 미미케 다카시 감독의 <오디션>(1999)은 42살 홀아비 아오야마가 신붓감을 찾기 위해 오디션을 실시하며 시작한다. 4천명의 후보자 중 신비롭고 순종적인 24살 아마사키 아사미가 발탁되는데, 그녀는 걸보기처럼 아름답고 순종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무라카미 류의 소설이 원작이지만 미미케 다카시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고문 장면이 압권이다. 오디션은 카메라의 권력과 남성 시선의 권력이다. 이는 후반부에 아사미의 응징을 통해 눈이 찢리고 다리가 잘리면서 참혹하게 거세된다.

<시리얼 맘>(1994)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상냥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어둡고 더럽고 불온한 살인자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성을 그린다. <시리얼 맘>의 후반부는 법정극의 형태로 전환되는데, 시리얼 맘이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기인이 된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작품 이후에 실제로 O. J. 심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조영되고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존 워터스 감독의 통찰력이 보이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힘을 지닌 센 여성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 영화들을 골랐다. 남종석 프로그래머는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1965)를 강추했다. 러스 마이어의 65년작인데 수전 손택이 이 영화를 페미니스트적이고 전복적인 영화라며 거론했다는 것. 러스 마이어 하면 저예산 섹스플로이테이션영화의 대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영화는 쿠엔

틴 타란티노가 리메이크하고 싶어 했고, (리메이크는 미완이지만) <데스 프루프>(2007)에서 오마주했던 작품.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육체를 지닌 채 사막에서 총횡무진 자동차경주를 하며 하이힐로 남근을 후려차는 과격한 60년대 언니들은 지금 봐도 매력적이다.

김봉석 프로그래머는 <여죄수 사소리-701호 여죄수 사소리>(1972)를 강추했다. 타란티노가 <킬 빌>(2003)에서 오마주했고, 주인공 가지 메이코는 <킬 빌>과 <킬 빌2>에 쓰인 주제를 불렀다. 도에이라는 메이저에서 제작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만큼 노골적인 일장기의 모독과 감옥 내 반란 등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나 실험적인 연출기법이 돋보인다. 감옥 내 사소리의 수난은 거의 예수의 수난을 연상할 만큼 억울한 여자의 결백함을 강조한다. 권력을 찬 남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나쁜 놈들로 나오고, 눈이 클로즈업되거나 공격을 당하는 등 거세의 이미지가 강조된다. 여성 죄수의 반란과 사소리의 단호한 응징에서 해방의 순간이 있지만 마지막에 사소리는 감옥으로 돌아간다. 무질서하고 전복적이고 불온한 기운을 잠재우는 결말이면서 2편을 예고하는 결말이다. 타란티노가 경배했던 사소리란 캐릭터의 매혹을 극장에서 볼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존 카사베츠의 <글로리아>(1980)는 여성의 외피를 지니고서 남근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린다. 시종일관 계속되는 추격과 보호하는 푸에르토리칸 남자아이 필과의 '밀당'이 영화의 중심축이다. 필은 강요된 남성성과 가부장적 권위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이자 글로리아를 바라보는 눈이다. 필은 글로리아에게 호통을 치다가, 총으로 응징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사과를 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마지막에 필은 말한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면서 어머니면서 가족이면서 친구면서 여자친구다." 이 말이 글로리아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다.

예술의 세계로 들어온 괴물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권력>에서 공포영화가 괴물의 정의를 '비천한 것'이라 하면서 이를 정화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었지만 이제 예술로 그것이 넘어왔으며, 공포영화가 그런 제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악마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신의 모습을 그릴 수 없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으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결의 자체의 목적은 상징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카타르시스와 쾌락이 있다. 더럽고 역겨운 것을 보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계속 건드리는, 그런 것이 판타스틱영화제의 역할이자 우리가 함께 통과해야 하는 제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he King of Pigs)(2016 IT Project)

NAFF's IT Project Market

Connects filmmakers to investors,
this year will include Vietnam Spotlight

Every year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offers hundreds of genre films over the span of 11 days. However, did you know that the festival also has an industry side?

Nestled under the "BIFAN Industry Gathering" (B.I.G.) program is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an industry specific event launched by the festiv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genre films. One of the central pieces of NAFF is the IT Project Market. Established in 2008, NAFF's IT Project Market is the world's first project market created specifically for genre films. Each year, the IT Project Market invites selected projects to Bucheon for four days for industry business meetings. During this time filmmaker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investors, distributors, and other industry professionals that can help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their feature film project.

The IT Project Market focuses on up and coming Asia based filmmakers. Each year, the market also chooses a specific Asian country to highlight additional projects. For 2017, a total of 233 projects from 39 countries were submitted and in the end, 16 projects were chosen. In addition, 4 projects were chosen from this year's spotlight country, Vietnam.

Over the past 10 years, the IT Project Market has worked hard to establish itself as one of the industry's premiere content markets. Previous projects that have gone on to successful runs after being selected for the IT Project Market include LEE Ji-seung's AZOOMA, the Gareth Evans action film The Raid 2: Berandal, and YEON Sang-ho's animated feature The King of Pigs.

This year's It Project Market kicked off on Sunday, July 16th in the Ruby Room of the Goryeo Hotel. Business meetings began promptly, early the day. Later in the morning, market attendees gathered to watch participants from Vietnam, this year's focus country, pitch their film projects before a large audience. Quite a few of the Vietnamese projects showed great potential, already having completed development and partial funding. One project, The Sacred Guardians, presented the audience with elaborate character designs and a thrilling teaser trailer.

In addition to the relationships that can be established during the project business meetings, participants also present their project to a jury to compete for cash prizes. This year's jury includes Jeffrey Chan, COO of Bona Film Group, award winning producer Mick GARRIS, Lewis Taewan of Lewis Pictures, and media producer Sten-Kristian SALUVEER.

Well planned, creative projects that show a high likelihood of being completed and gaining distribution stand the chance of winning over 50,000,000 KRW in cash prizes and production support. The market's largest prize, the Bucheon Award, offers a pot of 15,000,000 KRW.

This year's IT Project Market will conclude on Tuesday July 18th with an awards ceremony and B.I.G.'s closing reception.

Christopher Weatherspoon

Mon Mon Mon Monsters

Giddens KO | Taiwan | 2017 | 112min | Bucheon Choice: Features

Nature is cruel, but not as cruel as teenagers. That's certainly the case in *Mon Mon Mon Monsters*, the sophomore feature film effort from Taiwanese director Giddens KO. The movie centers around a high school student that comes in contact with a pair of feral women that have a taste for human flesh.

The film's protagonist, Lin Shuh-wei (Deng Yu-kai) is a shy high school student who is constantly bullied by his classmates. Lin's teacher, devout Buddhist Ms. Li (Carolyn Chen) is ineffective in helping him with his social problems and even forces him to do community service with his three main tormentors, all led by possible sociopath Ren-hao (Kent Tsai). During their community service the teens come across one of the feral creatures that has been feasting on people inhabiting the old folks home. Through a series of events, they are forced to take the girl back to their school where they torture and perform experiments on her, not realizing that her partner is as bloodthirsty and vengeful as they are cruel.

Mon Mon Mon Monsters mixes dark comedy and horror to send a message about the cruel, monstrous nature of civilized, human society. Ko's point of view is unmistakably clear. Humans are terrible creatures. In fact, none of the characters, even Lin himself is likeable and the only creatures worthy of sympathy seem to be the two feral women. The visual world of the *Monsters* is quite striking, featuring desolate, derelict buildings. The film is well paced but the ending may not be entirely satisfying (or logical) to some viewers.

Christopher Weatherspoon



(Mon Mon Mon Monsters)



The Money Guy

Justin Deimen, managing partner of Aurora Media

Justin Deimen is a co-founder of the Southeast Asian Audio-Visual Association (SAAVA), a non-profit network seeking to unify media producers, creative entrepreneurs, and investors around ASEAN, and is also a member of the EAVE network of European producers. He also advises on and organises the programming in Southeast Asia's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media events and content markets in BroadcastAsia, ScreenSingapore and the Asian TV Forum. Justin is currently the principal and managing partner of the Aurora Media Holdings fund, producing and investing in entertainment properties and media assets worldwide.

Can you tell us about what you do here with the IT Project Market?

My company, Aurora Media Holdings, we sponsor a prize (10,000,000 KRW) for a project that we see at the IT Project Market that we want to get involved in. We invest in film and any sort of media project, not just in Asia, but around the world.

So why do you choose to come to NAFF?

We find that it has a good selection of genre projects in Asia. And knowing that we run our own project market in Southeast Asia as well, we find that we make a great partnership.

So what kind of projects are you looking for?

We basically look at the project, we look at the talent, we look at what they've done, and what potential the project can have worldwide. We try to see how we can work with the project and maximize it.

Any advice for projects that want to work with Aurora Media Holdings?

When I was a lecturer at the Fantastic Film School last year, I remember telling filmmakers that they need to be flexible and open to looking at their projects both creatively and financially.

Christopher Weatherspoon

screening 07/17 Mo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401 11:0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135min / ㉔			413 14:00 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140min / ㉔			426 17:00 어느날 *One Day 114min / ㉔			439 20:00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93min / ㉔		
FC		402 11:00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I Wish I Had a Wife 106min / ㉔			414 14:00 피도 눈물도 없이 No Blood No Tears 120min / ㉔			427 17:00 이어도 leoh Island 110min / ㉔			440 20:00 어미 *Mother 100min / ㉔		
HYU3		403 11:00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120min / ㉔	GV		415 14:00 악녀 The Villainess 123min / ㉔			428 17:00 인터체인지 Interchange 103min / ㉔			441 20:0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㉔	GV	
HYU4		404 11:00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129min / ㉔			416 14:00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110min / ㉔						20:00 메가토크 x 김혜리의 필름클럽 Mega Talk x Kim Hee-ri's Film Club 90min		
HYU5		405 11:00 파크 Parks 118min / ㉔			417 14:00 데스 콜 Don't Hang Up 83min / ㉔			429 17:00 블랙 홀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105min / ㉔	GV		442 20:00 순속의 부부 THE END 105min / ㉔		
HYU6		406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87min / ㉔	GV		418 14:00 더 바 The Bar 102min / ㉔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60min				443 20:00 나의 이름은, Your Name. 107min / ㉔		
HYU7		407 11:00 유괴의 진실 Kahaani 2 127min / ㉔			419 14:00 Kfc 68min / ㉔			430 17:00 인질의 극 Play of Hostage 115min / ㉔	GV		444 20:00 라스트 쇼 Tap: The Last Show 133min / ㉔		
BST1		408 11:00 낯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90min / ㉔	GV		420 14:00 카사블랑카 대소동 Headbang Lullaby 111min / ㉔			431 17:00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86min / ㉔			445 20:00 보통호수 캠핑괴담 Lake Bodom 85min / ㉔	GV	
BST2		409 11:00 잉크의 맛 A Taste of Ink 80min / ㉔			421 14:00 올라 올라 Ola Bola 113min / ㉔			432 17:00 쿤 판 Khun phan 110min / ㉔			446 20:00 천하대잔: 왕좌의 전쟁 Tam Cam - The Untold Story 115min / ㉔		
BST3		410 11:00 집으로 가는 길 Way Back Home 131min / ㉔			422 14:00 가짜들 Pretenders 102min / ㉔			433 17: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㉔			447 20:00 마이 엔젤 Angel 79min / ㉔	GV	
BST4		411 11:00 배드 블랙 Bad Black 68min / ㉔	GV		423 14:00 내 마음의 풍금 The Harmonium in My Memory 117min / ㉔			434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88min / ㉔	GV		448 20:00 이단자들 The Heretics 87min / ㉔		
BST5		412 11:00 마이 스투피드 보스 My Stupid Boss 109min / ㉔			424 14:00 설녀 Snow Woman 95min / ㉔			435 17:00 해피엔드 Happy End 99min / ㉔			449 20:00 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100min / ㉔		
SS					425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㉔			436 17:00 블랭크 13 Blank 13 72min / ㉔			450 20:00 팀 탈러, 웃음을 찾아버린 소년 The Legend of Timm... 102min / ㉔		
SH								437 17:00 유령 병원 Ghost Hospital 104min / ㉔			451 20:00 체리 리턴즈 Cherry Returns 89min / ㉔		
OA								438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82min / ㉔			452 20:00 글로리아 Gloria 123min / ㉔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Films marked with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등급 Rates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㉕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㉖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㉗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㉘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전디광장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BST1 CGV 부천역 1관
BST2 CGV부천역 2관 BST3 CGV부천역 3관 BST4 CGV부천역 4관 BST5 CGV부천역 5관 SS 송내술안아트홀 OA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SH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too cool for school LONDON · NEW YORK



BACONIO
BRACCHIA

Made in Italy
다이너플라츠 바치오브라키오



신규 VOD 정보 걱정 **뚝!**

케이블TV VOD **딱!** **플·친·추·가**로

“케이블TV VOD 카카오프러스친구가 개설 되었습니다!”



케이블TV VOD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신작 VOD, 인기 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정보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